주 일 예 배

오전11시 예배인도 이진우 목사

찬 양	Praise	다 같 이
통성기도	Prayer	다 같 이
신앙고백	주기도문	다 같 이
찬 송	Hymn 27	다 같 이
기 도	Prayer	안미나 집사
교회소식	Announcement	인 도 자
성 경	사무엘상16:14-23	인 도 자
설 교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	이진우 목사
찬송과봉헌	Hymn 359	다 같 이
축 도	Benediction	이진우 목사

■ 다음주기도 : 박선영 집사

예 배 와 모 임 안 내

주 일 예 배	오전 11시
새 벽 기도회	오전 5시 30분(월-금)
수요성경공부	매수 오후7시(예정)
가정교회예배	각 가정교회별로

교회를 섬기는 이들

목 회 사역	이진우 목사
행 정 사역	박종갑 장로 남관희 집사
선 교 사역	서정길 장로 안찬호 성도
양 육 사역	Kaitlan Hronek
미디어 사역	윤지호 집사
친 교 사역	정순영 집사 이현미 집사
찬 양 사역	이오현 집사 서새롬

【자유교회 Vision 소개】

■ **자유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유일한 담임목자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동역자입니다. 자유교회는 사람보다 예수님이 세상에 알려지길 원합니다. 교회의 행정과 운영에 있어서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할 것이며 실험할 것입니다.

■ **자유교회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성경에서 교회란 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즉 교회란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라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가 부패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교회 건물이 노후했다는 뜻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인 성도가 교회답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예배를 통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을 회복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된 우리의 모습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줄 것입니다.

■ **자유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은 교회가 지켜야할 지상최대의 명령입니다. 가깝게는 지역사회로부터 크게는 세계 각처에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실제적으로 헌금의 50%를 선교와 구제 그리고 이웃과 지역을 섬기는 일을 위해 사용할 것입니다.

■ **자유교회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 받은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믿는 자에게는 자녀의 권세를 회복케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자유, 모든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 권세와 문화에 좌우되는 성도가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2007년 9월 23일 제60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LIBERTY METHODIST CHURCH

자 유 교 회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교회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교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교회

자유교회 Liberty Methodist Church

CHURCH: 716 E 56TH ST. TACOMA WA 98404
PARSONAGE: 6584 DISCOVERY ST. E FIFE WA 98424
TEL (253)661-5436, 227-1775
HOMEPAGE: WWW.JAYOOCHURCH.ORG
E-MAIL: GRACEOFJESUS@COMCAST.NET

◘ 금주의 말씀요약 ◘

사울은 왕으로서 하는 일마다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을 저질렀습니다. 사실 겉으로 보기에 그 두 번의 불순종은 결코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부도덕하거나 부정한 일을 저지른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전쟁을 수행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사울의 두 번의 행동은 지극히 사리에 맞는 행동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롭고도 대단히 중요한 사실은, 그 두 번의 불순종이 모두 예배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 두 번의 불순종이 사울을 황폐케 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전쟁을 승리로 결론지은 사울의 지도력에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두 번의 전쟁 중 벌어진 이 사건은 언뜻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는 마음에서 벌어진 일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사울의 우선적인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일을 통해 백성에게 인기를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사람에게서 인기를 얻는 것은 참으로 사람을 흥분하게 합니다. 우쭐하게 합니다. 스스로를 대단하다고 착각하게 합니다. 이것이 사람에게서 받는 인기가 주는 유혹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받는 인기는 지속되지 못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순식간에 식어 버립니다. 인기를 지속하기 위해선 더욱 자극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사울 왕은 끊임없이 사람들의 인기를 지속하고 싶었습니다. 결국 사울의 눈에는 하나님보다도 사람들이 어느덧 더 크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결국 사울을 타락하게 한 것입니다.

사울의 생애를 통해 발견하게 되는 중요한 사실은, 사울은 일을 더욱 잘 하려고 노력했고, 일을 잘하고 좋은 왕이 되는 방편으로 하나님을 자기 멋대로 끌어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사울을 넘어지게 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일이 주는 교묘한 유혹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구나 일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을 잘 하거나 좋은 일을 할 때 정말 신과 같은 존재가 된 것인 양 착각하게 합니다. 일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될 때보다 일을 참 잘한다고 인정받을 때가 더욱 우리에게 위기의 순간입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스스로의 만족은 급기야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일이 주는 유혹입니다.

좋은 일을 맡았다고 해서 좋은 일을 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맡은 옳은 역할이 결코 우리가 옳다는 것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사울은 좋은 일을 하는 와중에 죄를 지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수행하는 와중에 그만 하나님께 기름부음을 받은 왕의 신분에서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생애를 보건데 일은 성의 문제보다 훨씬 많이 사람들을 유혹에 빠뜨립니다. 다윗 이야기의 후반부에 가면 다윗이 성적인 유혹에 빠져 급기야 간음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나 성과 관련된 다윗의 죄보다는 일에 관련된 사울의 죄가 더 파괴적이었음을 사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일에 관하여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죄는 우리에게 그다지 심각한 문제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반면 성적인 불순종은 누구나가 그 죄의 심각성을 너무 잘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의 일이나 지위가 의롭다고 해서 우리가 의로운 것 절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울과 다윗은 둘 다 하나님의 영의 기름부음에 의해 왕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들은 둘 다 좋은 일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좋은 일을 맡았다는 것이 곧 좋은 일을 하게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의 직업은 중요합니다. 우리의 일은 중요합니다. 우리의 사역은 분명 중요합니다. 하지만 일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완벽하게 이루는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소명을 따라 사는 삶의 열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아 사는 삶의 열쇠는, 어떤 직업이나 일을 맡았느냐가 아니라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가 그 일을 어떻게 수행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일에 대하여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자기를 들어내기 위해 사람의 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한 종류의 사람은 세상적인 사람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는 사울의 일은 분명 하나님의 일이었지만, 사울은 그 일을 자신을 드러내는 일로 삼았습니다. 다윗은 하찮게 보이는 궁중의 악사라는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냈습니다. **삼상16:23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일을 맡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그 일을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세상의 아무리 하찮게 여겨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 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유교회 소식】

1. **자유교회는 복음의 진리를 사모하는 교회입니다. 진리를 통해 복음이 주는 자유함의 은총이 우리 삶 속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2. **10월부터 새벽기도회와 가정교회(속회)모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금주와 다음 주 친교식사 후 가정교회 인도자 교육이 있겠습니다.**
3. **10월 15일(월) 기독교대한감리회 미주선교회 서북부 지방 교역자회의가 우리교회에서 개최됩니다.**
4. **박준호 성도가 팔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최정아 성도 사업체와 교회출석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매주 친교식사를 위해 자원하심으로 애써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지난주 헌금통계

십 일 조:	$350.00	
감사헌금:	$230.00	
주일헌금:	$24.00	
특별헌금:	$0.00	**합 계: $604.00**

중보기도 제목

- 우리교회에 주신 오천 명을 먹이는 비전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주옵소서.
- 장애우를 돕는 밀알선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장애우들에게 풍성하게 하옵소서.
- 북한의 땅에도 복음이 증거 되게 하시사 복음을 통해 민족의 통일이 앞당겨 지게 하옵소서.
- 샤론의 집을 통해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한인여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 도산 경로 대학을 통해 노년의 삶이 더욱 풍성해 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옵소서.